

# 몸 낮춘 민주 “당의 승리 아니다...정권 폭주 국민이 심판”

### “국민 삶속에 들어가겠다”...강서구청장 압승 ‘민생’ 다짐 이재명 체제 더 공고해 질 듯...비명계는 쇠신 요구 지속

미리보는 내년 총선으로 평가받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끈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민생’을 강조했다.

홍희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 회의에서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 ‘제대로 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며 “국민이 주신 기회를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정 폭주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국민의 삶에 들어가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이번 보궐선거까지 승리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발판을 마련했다.

홍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어쨌든 선거 결과가 좋아 이 대표 체제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생겼다”며 “한 달여간 위기를 매우 잘 헤치고 나왔다”고 평가했다.

당의 구심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와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도 관심사다.

비명계 대거 이탈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계파 갈등이 첨예해지자 이를 해결하는 게 이 대표의 큰 숙제 중 하나였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정치·사법 리스크의 큰 파고를 넘고 여유를 찾은 만큼 당장은 비명계를 향해 칼을 휘두르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한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지금은 징계하지 않거나 징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당은 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총선 공천 등을 통해 얼마든지 비명계를 정리할 수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이 대표가 무리하게 징계 카드를 꺼내 들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상대적으로 세력이 위축된 비명계는 ‘로키’를 유지하면서도 일부는 이 대표에게 더 강력한 쇠신을 요구하는 등 견제를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

조용천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쯤 되면 (국회의원) 배치 한 번 더 달고 말고 큰 문제는 아니잖나”라며 “땀발 출마를 고집하면 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11일 밤 강서구 마곡동 캠프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자 꽃목걸이를 걸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진교훈 강서구청장 당선...17.15%p 차 낙승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17%포인트(p) 두 자릿수 격차로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진 후보는 득표율 56.52% (13만7066표)를,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39.37% (9만5492표)를 기록했다.

진 후보는 전체 투표수 24만3664표 중 과반을 득표하며 김 후보를 17.15%p 차이로 앞섰다.

이로써 민주당은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치러진 서울 기초단체장 보선에서 승리를 거두는 성과를 올렸다. 비록 전통적 우세 지역이긴 하지만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인 결과는 야당의 낙승으로 돌아갔다.

이번 보선 투표율은 48.7%로 잠정 집계됐다.

진 후보는 “이번 선거는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강서구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그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본 일조를 아껴 구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 출신인 진 후보는 경찰대를 졸업한 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정보국장, 전라북도경찰청 청장,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다.

이번 선거는 김태우 후보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구정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한국 ‘글로벌 AI지수’ 6위...“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해야”

한국 인공지능(AI) 산업의 현장 인력 부족, 민간 투자 부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영국의 데이터 분석 미디어인 토터스인텔리전스의 ‘글로벌 AI 지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 AI 산업의 개선·보완점을 발표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AI 지수에서 한국은 총점 40.3점을 기록해 전체 62개국 가운데 종합 6위에 올랐다.

1위는 총점 100점을 획득한 미국으로, 2위를 기록한 중국(61.5점)을 상당한 격차로 앞섰다. 미국, 중국 다음으로 싱가포르(49.7점), 영국(41.8점), 캐나다(40.3점)가 뒤따랐다.

이번 평가의 세부 항목은 인재, 인프라, 운영환경, 연구수준, 특허(개발), 정책(정부 전략), 민간 투자 등 7개 부문이다. 한국은 특허와 정책 부문에서 각각 3위, 6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AI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였다.

/연합뉴스

## 검찰,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백현동 개발 특혜 제공 혐의

### 구속영장 기각 보름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 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는 단독으로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몰심 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과

함께 1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현동 특혜 사건을 먼저 기소하기로 했다.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위례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범행으로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들이 동일한 데다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은 3월 기소된 후 6개월가량의 준비절차를 마치고 이달 6일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검찰 관계자는 “먼저 진행되는 사건이 있어서 병합하는 차원에서 백현동 사건을 먼저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민주 “檢, 보선 참패에 李 기소 카드...후안무치”

### “尹책임론 국민 전환 구원투수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한 것을 두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라고 맹비난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에 전광석화처럼 기소 카드를 꺼내

든 후안무치한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선거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야 한다던 윤석열 정권의 첫 응답이 국정 쇄신 아닌 ‘정적 죽이기 기소’라니 기가 막힌다”라며 “대체 언제 정신을 차리려고 하느냐”고 꼬아붙였다. 또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 기소’로 민심의 심판을 받은 선거 결과를 덮지 말라”며 “야당

대표 탄압에 혈안이 된 정치 검찰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검찰특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보궐선거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부상하자 또다시 정치 검찰이 ‘국면 전환’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냐”고 비난했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그릇된 집착을 끝내 버리지 못한 모양”이라며 “지난 9월 27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백현동과 대북 송금 건은 범죄 소명조차 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운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